

대구 파티마 병원 호스피스

대구 광역시 동구 신암동 302-1

☎ 053) 952-4051

1) 동기

암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더 이상 의료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원목자들이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호스피스 돌봄”이 활성화 된 것은 92년부터 서울 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한 원목자들이 교육 내용을 근거로 환자와 그 가족들을 특별히 접촉하게 됨으로써 차츰 발전하게 되었다.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 줌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 ♡ 환자가 가톨릭 신자일 경우 봉성체, 고해성사, 병자성사 배려.
- ♡ 환자가 비신자일 경우 대세, 혹은 영세 (본당과 연락 후)
- ♡ 환자가 타 종교일 경우 담당 사목자 방문 의뢰.

2) 대상자의 선정

일반 병실 혹은 1인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돌보는 산재형(The Inpatient Scattered - Bed Consultative Model) 호스피스로써 원목자들이 방문을 통해 환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는 주치의로부터 의뢰 받거나 간호사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최근에는 보호자들로부터 상담의뢰 받게 되어 선정하기도 한다.

선정된 환자는;

- ① 종교의 구별없이 말기 환자로서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두려움을 가진 이들.
- ②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등 더 이상 의료적 치료가 기대되지 않는 이들.
- ③ 의사 소통이 가능한 이들이다.

3) 활동 내용

- ① 원목자 : 매일 방문, 기도(환자와 보호자들의



② 자원봉사 : 방문 기도

- 책 읽어 드리기
- 차량 / 미용 봉사
- 신체적 간호
(머리 감기기, 맞사지...등)

4) 장례 및 사도예절

장례 예식은 가정의 의례대로 편의를 보아 드린다. 대세를 받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장례미사를 하고 사도예절을 해 드림으로써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 해 준다.

5) 봉사자들의 교육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대구 대교구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에서 정규 교육을 수료한 자들로서 매주 1회 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월 1회 월례 모임을 통해 방문 환자에 대한 나누기와 보수 교육을 하고 있다.

6) 위령 미사 및 사별 가족 모임

11월에 합동 위령 미사를 하고 미사 후 사별 가족들의 모임을 원목실에서 하며 나눔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7) 앞으로의 Hospice Unit 계획

새 병동 증축이 '99년 5월경에 완공되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호스피스 병동 형태를 갖는 병원이 된다. 5인 병실 2개와 1인 병실 2개 그리고 임종실 등 모두 13 Bed를 갖게 된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좀 더 쾌적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상담실, 가족 대기실, 봉사자실 등 시설을 갖추고 언제라도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의 기도실도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소극적 방법의 팀웍에서 의사, 간호사, 원목자, 봉사자, 영양사, 약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호스피스 팀웍이 구성되어 좀 더 바람직한 적극적 호스피스 돌봄으로 병동을 찾는 환자들에게 좋은 삶의 마침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확장

137-701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

☎ 02) 590-1690, 1693

FAX 02) 590-2198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는 1988년 10월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념실천 목적으로 개설되어 지난해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약 1,500여명의 말기 환자들을 맞아 그들의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그들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해 왔다. 과거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발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본원 호스피스는 1998년 10주년을 계기로 도약적인 발전을 꾀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호스피스 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병동 확장

지난해 업무 현황 분석 결과 입원 신청자의 입원율이 66%인 점으로 보아 병상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고려하여 입원실 5병상을 증축하였고,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간이 주방을 개설하였으며, 임종실을 '임마누엘'로 하여 새로 단장하였다. 병동을 확장함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자를 기존의 말기 암환자에서 임종이 6개월 이내로 예견되는 모든 질병의 말기환자와 AIDS 환자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 Day Care(주간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한 환자와 입원 대기중

인 환자 가운데 기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2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Day Care를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3) 말기 환자의 가족을 위한 계획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 가족과 일반 병동에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 가족, 그리고 가정에 있는 말기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및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의 간호에 대해 월 2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4) 본당 호스피스팀 양성

호스피스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 운동으로서 가톨릭교회 정신에 입각한 운동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병자 사목이 활성화 되지 못했고 가정에 있는 말기환자에 대한 교회의 배려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환자들에게는 익숙한 가정에서 따뜻한 간호를 받으며 평화로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고, 지친 가족에게는 봉사자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휴식과 지지를 제공하고자 본당 호스피스 팀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난 2월 시범적으로 서초동과 청담동 본당 교우를 대상으로 팀요원을 선발하였고 본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6주간의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였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본당에 과건하여 기존 봉사자와 함께 활동하게 되고 6개월간 활동을 매달 추후 관리하고 평가한 후 다른 본당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신규 회원 명단

- 성 모 병 원: 유영자 이봉자 김종근 조송자 김은자 차일성 박규창
- 성 가 병 원: 정승덕 김은희 정소현 강현숙 박선영
- 경 희 의 료 원: 정숙자
- 성 빈 센 트 병 원: 송정숙
- 제 주 교 구: 김평중
- 서 울 교 구: 김경희 양순자 김경혜 최선미 송 금
- 성 가 를 로 병 원: 이명화 황영대 임설매 소선도 배옥란 김 영 신복희 양혜선
- 대 전 성 모 병 원: 이인숙 남미정 여경오 주정란 박정옥

※ 주소가 변경된 회원께서는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 3779-1412